

일본 고분자학회를 다녀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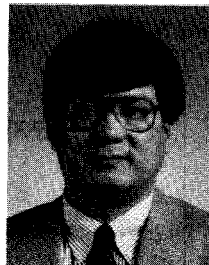
한국 고분자학회와 일본 고분자학회 사이의 우호 증진을 위하여 마련된 Young Scientist Exchange Program에 의하여 10월 1일부터 3일까지 Nagoya에서 개최된 일본 고분자학회의 가을 정기학회인 46th Symposium on Macromolecules에 참석하였다. 매년 한국측 학자들이 일본 가을학회에 참가하고, 일본측 학자들이 우리 춘계학회에 참가하는 program으로 올 해는 KAIST의 김상을 박사(충청지부), 금오공대의 윤관한 박사(경북지부), 그리고 학회 본부를 대표하여 본인이 참가하여 논문을 발표하였다.

일본 고분자학회도 1년에 두 번의 정기학회를 개최하는데 봄에 열리는 학회는 일반학회와 비슷하게 12분 발표에 3분간의 질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으나, 가을에 개최되는 학회는 고분자토론회로 명명되어 15분간 발표에 10분간의 질문 시간이 배당되어 있었다. 좌장은 10분간의 질문시간을 책임지고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청중들의 질문을 독려하고, 자신이 질문을 하여 시간을 채움으로써 발표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도록 유도하였다.

일본 고분자토론회에는 2,5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1,10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이번에 조선대에서 개최된 우리 춘계학회에 700여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370편의 논문이 발표된 것에 비하면 거의 3배가 넘는 숫자이다. 일본 고분자학회의 춘계학회는 3,500여명이 참가하며, 학회 참가자의 1/3이 기업체의 연구원들이라고 하니 일본 고분자학회가 얼마나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총 회원수가 13,000여명인 일본 고분자학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근 직원의 수가 20여명인데 비하여 총 회원수가 3,000여명인 우리 학회에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의 수가 단 두 명인 것은 우리 학회가 일본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두 종류의 학술지(영문과 일본어)와 한 가지의 기술지를 매 월 발간 하는 일본 학회의 Publishing Dept.에서 5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으며, Membership Dept.에 3명, International Dept.에 2명, Research Group Dept.에 6명, 그 밖에 4명의 Manager들이 일본 고분자학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20명 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일본 고분자학회의 일년 예산 중 2/3 이상을 정회원 회비와 정기학회 참가비로부터 충당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는 학회 일년 예산의 1/3 정도를 충당하고 있을 뿐이며, 80% 이상의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하는 일본 학회에 비하여 우리 학회는 현재 절반이 안되는 회원들이 회비와 구독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고분자학회가 운영되는 것을 보고 현재 두 명의 학회 직원과 간사들의 자발적인 봉사에 의존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우리 고분자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회 직원의 수를 늘려 일본 학회와 같이 Membership 등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게 되면, 회원들의 회비 및 구독료를 충실하게 거둘 수 있게 되므로 예산이 증가하게 되어 새로운 직원들의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또한 학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상근 인적자원이 증가하여 학회가 보다 활성화 되리라 본다. 둘째, 우리 고분자학회의 춘계와 추계학회를 차별화하여 춘계학회의 구두발표에서는 연구책임자가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며 발표시간을 길게 줌으로써 토론의 기회를 마련하여 주고, 추계학회에서는 보다 많은 회원들이 구두발표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발표시간을 짧게 하는 것이다. 셋째, 현재 지방에서 개최되고 있는 추계학회를 학회 본부에서 주관하는 대신 해당 지부가 주관하여 학회를 개최하게 함으로써 지부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 본다. 넷째, 기업체에서 연구하는 회원들의 활발한 학회참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기업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특별발표 분야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3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일본 고분자학회의 활발한 움직임은 학회 일을 하고 있는 본인에게 썩 인상적이었으며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이번 방일 중에 여러 면에서 세심하게 배려를 하여 준 일본 고분자학회의 Mr. K. Shida와 H. Oh-Hashi께 감사드리며 이 글을 마치하고자 한다.



송기국

1976 서울대학교 공업화학과(학사)
 1981 국방과학연구소
 1983 Univ. of So. Mississippi(석사)
 1988 Univ. of Michigan(박사)
 1988~ IBM Almaden Research
 1990 Center
 1990~ Hoechst Celanese Corp.
 1994
 1994~ 경희대학교 화공과 조교수
 현재

(현 풀리머 편집간사)